

The Key IV.

하늘의 능력은 죽고자 낮아지는 사람에게 임한다.

1.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늘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다. 겸손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겸손이란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겸손의 반대 개념을 알면 겸손의 의미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겸손의 반대 개념은 '교만'이다. 교만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만(驕慢)**은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함,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 칭찬을 그에 상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의 태만, 과도한 자기에 등을 가리킨다.”

높은 자존심, 즉 자신이 최고라는 마음이다. 타인보다 중요하고,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은 자신이 최고 월등한 존재라는 마음이다. 이것은 월등한 존재인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이다. 왜 월등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가? 바벨탑이 좋은 예이다. 바벨탑의 핵심은 무엇인가? 높이 탑을 쌓아올려 '자신의 이름을 알리자' 라는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다. 그 영광을 받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바벨탑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을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존귀함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의 안에 있을 때 나타난다. 모든 만물의 영광의 중심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 즉, 예수님 자신보다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자신을 낮추셨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5-6]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앉지 않는 마음이다. 자신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구체적이다. 자신이 집중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영광을 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2. 겸손이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3)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마태복음 4:5-6)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마태복음 4:8-9)고 시험했다.

시험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을 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계셨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님의 기도를 보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다. 바로 이 모습이 '겸손'이다.

3.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는 '겸손'이다.

겸손은 행위적인 낮아짐이 아니다. 행위적인 것은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신보다 높은 상사에게 엎드릴 수 있다.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의 겸손'이란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위대한 '존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겸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실제로 자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존재 앞에서 항상 낮아진 자세를 취하며 그의 말을 경청한다. 그리고 신뢰한다. 배우려고 한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높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

4. 하늘의 겸손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

(1) 자기를 부인한다.

[마가복음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는 '자기부인'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 주목받고 싶어하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 '영광'의 중심 가운데 서고 싶어하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인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고 넓은 계시가 있어야 한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이다.

[로마서 11:33]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해질수록 내 마음안에 '확신'이 생겨난다. 그것이 곧 '믿음'이 된다.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태도가 '겸손'이다.

(3) 실제적인 겸손의 자리를 사랑하라

모든 영역에서 겸손의 자리를 사모하라. 우리의 삶에서 겸손의 자리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빌립보서 2:3]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의 마음이란, 실제적으로 내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마음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남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마음'을 얻는 삶이 된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권위'가 부여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자리를 얻지 않고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게 된다.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섬기는 자는 성숙한 사람이다.

진짜 마음의 돌파는 내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의 굴복이다. 진짜 능력은 상대방이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나의 영향력의 자리를 남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다. 겸손을 사랑하라. 겸손은 하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임을 기억하라.